

스승을 통해 알게 된 '책의 향기'

여전히 빛을 잃지 않는 김원룡 선생의 책

이청규 | 영남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내가 대학 다니던 1970년대에 한국에서 고고학 연구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었다. 고고학 발굴이 공사판 작업과 같고, 졸업 후에도 박물관 말고는 마땅한 직장도 없었으며, 박물관에 들어가봐야 막바로 정식 학예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봉급도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졸업하고 대학박물관에 들어가서, 고졸자와 같은 잡급직 대우를 받을 수는 있어도, 전문가로서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고고학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야외발굴 또한 그렇게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금은 개발에 따른 대형 발굴조사가 많아 발굴에 참여하면 발굴수당도 받지만, 당시는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다. 그런 상황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도심을 빠져나와 촌구석을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말해주듯 사회에 대한 일종의 도피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고고학은 전공 책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무미건조 그 자체였다. 지금도 고고학도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작고하신 김원룡 교수의 《한국고고학개설》(일지사)이 당시 고고학 관련 전공서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책이었다. 역사서나 문학과와 달리 재미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책을 아무리 들여다 본들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기분 또한 느낄 수 없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삼불 김원룡 선생일지라도 그분의 고고학 강의는 따분해, 일반인이 고고학에 대해 품고 있을 낭만, 모험과 극적인 경험 같은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고고학은 바로 발굴이라고 여길 만큼 유적유물 찾기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문화와 역사를 재현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유적유물자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거가 창출되기도 한다. 선사시대가 어느 날 역사시대로 되는 것도 금석문자료가 발견되기 때문이고, 전에 없던 시대개념이 생겨나고, 시대의 절대연대가 갑자기 앞당겨지는 것도 새로운 고고학적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고학자가 기존 자료에 대한 해석 못지 않게 더욱 힘을 쏟는 것은 새로운 유적찾기다.

내가 30대 초반에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는 선배교수로부터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에 막바로 건너간 것은 구하기 어려운 대학 전임자리기도 했지만, 고고학조사가 별로 활발하지 않은 제주도가 생각하기 따라서는 좋은 고고학 현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러 선학들이 이미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 있지만, 많은 유적이 확인된 것도 아니었다. 그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새로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10년 남짓동안 남보다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유적을 비롯해,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 유적, 탐라시대 전기의 무덤 유적, 탐라시대 후기의 생활 유적, 고려 이후의 사찰 유적 그리고 조선시대 관아 유적 등등 제주도 고고학의 기본틀을 짤 수 있을 만한 유적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소박하나마 제주도를 본격적인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지역고고학의 무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었다.

석사학위논문은 청동기를 주제로 작성해 제출했고, 제주도 현지에서 발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한국 청동기와 무문토기에 대한 논문을 간간히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고학자가 그렇듯이 1차자료와 직접 만나는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발굴 보고서를 한두편 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주도 고고학연구》(학연문화사)를 펴내게 된 것이다.

지역고고학 조사에 10년 남짓 매달리면서 대학 시절 그렇게 따분했던 김원룡 교수의 《한국고고학개설》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됐다. 흥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찬 역사나 문학 못지 않게, 스스로 말하지 않는 유적과 유물의 진가를 조금씩 느끼고, 하찮은 토기편·석기조각이 중량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김원룡 교수가 어느 글에선가 지적한 것처럼 고고학 분야에서는 논문이 몇 년 못가서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자체에 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고고학적 사실 확인이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욱 극적인 것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학이나 인류학 등 인접분야의 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이 항상 유적유물 타령만 하지, 그 자료를 근거로 당대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만큼 고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고뇌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굳이 변명하자면 연구의 대상 자료가 개발 등의 이유로 없어서 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발굴 현장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발굴을 마친 후에도 발굴된 유물을 정리 복원하고, 실측해야 하며, 많은 양의 원고를 써야 하는 보고서 작업에 워낙 많은 시간과 인력을 빼앗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였다. 각종 문화재 발굴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설립되고, 교육적 기능이 좀더 강조되는 대학박물관이 발굴 전문기관으로 아예 자리매김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고고학이 순수학문이면서도 인문학 중에서는 드물게도 용역을 많이 하는 분야가 되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졌다. 꼭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970년대에 한개 대학에 불과했던 고고학 전공학과는 30년이 지난 지금 고고학과, 문화인류학과, 고고인류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등의 이름으로 20여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기본 도구인 한국 고고학 교재가 김원룡 교수의 개론서 이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고학 자체의 원천적인 어려움 때문인데, 문헌사료를 섭렵하지 않으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역사학처럼 고고학의 특성상 개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들어와서는 하루하루 엄청나게 쌓여가는 유적유물자료 때문에 그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룡 선생의 고고학개론은 지금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김원룡 선생은 《한국고고학개설》 이외에도 《한국미술사》(서울대출

판부) 등 미술사 분야의 개론서도 출간한 바 있다. 웬만한 학자가 개론서 한권 내기도 어려운 사정에 비할 때, 이로써 그의 학문적 정열과 노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는 학술서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수상집도 곧잘 냈다.

최근에 다시 여러 권의 수필집에서 추려 모은 수필모음 《나의 인생, 나의 학문》(학교재)이 나와 당신의 살아온 역정과 학문과 관련된 단상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게 됐다. 까마득한 제자진 하지만 같이 참여한 한 고고학 발굴 현장의 에피소드 등이 적지 않아, 그의 글은 더욱 실감날 뿐만 아니라 내심 깊숙한 곳까지 와 닿는 것이 적지 않다.

학문의 스승으로서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그분을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드문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행운은 전적으로 학문적 열정 못지 않게 재기발랄한 그의 문학적 소양 때문인데, 수필 속에 녹아든 인생의 향기 못지 않게 일반적인 글에서 보기 힘든 재미가 함께 녹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의 냉엄한 학문적 자세는 수필 중에서 후배 학자들의 논문을 읽을 때마다, “어서 죽어버리는 것이 행복할지 모르고, 연구실 벽에 붙인 유서 봉투가 새삼스러이 보여지는 때가 있다”는 글귀에서 잘 드러난다. 학자라면 자기 논문이나 주장이 폐기처분되는 것을 예감하기란 흔한 일이지만, 유서봉투까지 들먹이는 것은 비록 허세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만만치 않은 인생의 여유도 누렸다. 특히 생선회를 좋아해, “용왕의 재판을 받거나 말거나 생전에 생선이나 많이 먹고 죽어서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지석묘를 세우고 그 밑에서 영원히 잠이나 들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가 또한 김원룡 선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다. 박물관의 화강석 부처머리를 보고 “석굴암 본존의 승고는 없으나 자비와 청순의 영구화된 미가 심연과 같이 깊다”면서 “있는 그대로가 표현되었고 구형된 그대로의 영겁으로 남아가려고 한다”고 쓴 것은 고고학과 미술사학자를 넘어선 깊이를 보여준다.

그런 삼불이 일흔을 갓 넘긴 1993년 11월 14일에 돌아가셨다. 뼈를 화장해 강물에 뿌려달라고 유언했지만, 주위 분들과 후학들이 차마 그러지 못해 고인의 뺏가루를 들판에 산골(散骨)하고 그 자리에 조그마한 비석을 세웠다. 그곳이 구석기 유적으로 유명한 한탄강변의 전곡리다.

돌아가신 지 꼭 7년이 된 지금 그 자리에 못가는 대신 이 글을 빌어 그분을 추모한다.●